

없음	명칭(한글)	장안사중흥비				
	명칭(한자)	長安寺重興碑				
문화재지정	비지정					
시대/연대	시대	고려	연대	1345년(충목왕1년)		
유형/재질	유형	비문	재질	미상		
크기	미상					
출토지 (구주소)	미상					
소재지 (구주소)	(한국)-현존하지 않음					
서체	미상					
제작자	찬자	이곡(李穀)	서자	미상	각자	미상
개관	<p>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금강산 장경봉에 있는 장안사의 중창 사실을 기록한 비. 비는 남아 있지 않고 이곡(李穀)이 지은 비문만 『가정집(稼亭集)』과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전한다. 비문은 원나라 순제(順帝)의 왕후 고려인 기씨(奇氏)가 천하명산으로 이름난 금강산의 장안사가 뛰어난 기복도량이라는 말을 듣고 1343년(충혜왕 복위4)부터 3년 동안 내탕금을 내어 절을 중수하고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화엄경에 담무갈 보살의 주처인 금강산의 장안사가 퇴락하자 평변(宏卞)이 중흥을 서원하고 사람들을 모으며 원에 가서 황후에게 알려 중창을 추진하여 모두 120간의 당우를 중수하고 정전에 삼존불과 1만 5천불, 선실에 관음 등 제보살, 해장궁에 아미타불, 노사나불, 법기보살상을 봉안하며 대장경 4부와 화엄경, 법화경을 봉안하고 1,050결의 토지와 염전 시장 등의 경영 재산을 기술하였다. 원 황실의 사찰 지원과 그에 따른 사찰 중창과 경영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p>					

<p>참고문헌</p>	<p><b>단행본</b>  (단행본)이석구역,1980,『국역가정집·목은집』,가정·목은문집편찬위원회  (단행본)朝鮮總督府編,1976,『朝鮮金石總覽』上,亞細亞文化社  (단행본)민족문화추진회편,1966,『국역동문선』,민족문화추진회;1998,도서출판솔    <b>논문</b>  (논문)崔完秀, 1999, 「謙齋를 따라가는 금강산 그림 여행」 『澗松美術』 56, 한국민족미술연구회  (논문)許興植, 1979, 「高麗時代의 새로운 金石文資料」 『大丘史學』 17(學會創立十周年紀念號)</p>
<p>관련금석문</p>	<p>장안사종기(長安寺鐘記)  장안사완(長安寺鉢)</p>



# 판독

판독자

가정집

## 長安寺重興碑 (李 穀)

聖天子龍飛之七年皇后奇氏以元妃生皇子既而備壺儀居于興聖之宮顧謂內侍曰予以宿因蒙恩至此今欲爲皇帝太子祈天永命非託佛乘其何以哉凡其所謂福利者靡所不舉及聞金剛山長安寺最爲殊勝祝釐報上莫茲地若也越至正三年出內帑楮幣一千錠俸資重興永爲常住用明年又如之又明年如之集其徒五百施衣鉢作法會以落其成迺命宮官資政院使臣龍鳳載本末于石以詔方來遂命臣穀爲之文謹按金剛山在高麗東距王京五百里茲山之勝非獨名天下實載之佛書其華嚴所說東北海中有金剛山曇無竭菩薩與一萬二千菩薩常說般若者是已昔東方人未之始知而指爲仙山爰自新羅增飾塔廟於是禪龕遍於崖谷而長安寺居其麓爲一山之都會也蓋劫於新羅法興王而重興於高麗之成王噫後法興四百餘年而成王能新之自成王至今亦將四百年矣而未有能興復者比丘宏卞見其頽廢興其同志誓於所謂曇無竭曰所不新茲寺者有如此山卽分幹其事廣集衆緣取材於山鳩食於人僦面雇夫礱石陶瓦先新佛宇寶館僧房以次粗完而費猶不給則又嘆曰世尊作祇園孤獨側金念豈無人顧不遇耳遂西遊京師事聞中宮而高資政主之又力故其成就如是竊惟乾竺之教與時興替昔我世祖皇帝是崇是信列聖相承而光大之今上皇帝繼志述事尤致意焉蓋聖人好生之德佛者不殺之戒同一仁愛同一慈悲也中宮之觀感有所自矣且古之施德於天下者莫如五帝三王垂教於後世者莫如孔子以今觀之帝王之廟食者幾希孔子雖有廟而限於禮制籩豆薦奠皆有常數其徒之食僅取足焉惟浮屠氏其宮在夷夏者蕃布星列殿陛之嚴金碧之飾視王者之居香火服食之奉視封邑之八是其感動于人者實深以廣茲寺之興宜也凡爲屋以間計之一百二十有奇佛殿經藏鍾樓三門僧寮客位至於庖湑之微皆極其輪奐像設則有毗盧遮那左右盧舍那釋迦文巍然當中萬五千佛五十三佛周匝圍繞居正殿焉觀音大士千手千眼與文殊普賢彌勒地藏居禪室焉阿彌陀五十三佛法起菩薩翊盧舍那居海藏之宮皆極其莊嚴藏經凡四部其一銀書者卽皇后所賜也華嚴三本法華八卷皆金書亦極其賁飾至若舊有之田依國法以結計之千有五十其在成悅仁義縣者各二百扶寧幸州白州各百五十平州安山各一百卽成王所捨也鹽盆在通州林道縣者一所京邸在開城府者一區其在市廛爲肆僦人者三十門凡其錢穀什器之數有司之者不載自泰定間重興檀越如中政使李忽篤帖木兒諸家列其名氏于碑陰銘曰

有山露骨巖巖突兀名金剛兮貝書所著菩薩住處亞清涼兮吹噓烟雲輪困網縲發神光兮鳥獸其馴蟲蛇其仁草木香兮釋子卓菴梯空架岩遙相望兮長安精舍居山之下大道場兮肇基羅代屢其成壞時不常兮天啓聖神世祖之孫君萬方兮德洽好生煦濡含靈慕空王兮於惟睿后體坤之厚承乾剛兮歸心身毒取彼妙福奉我皇兮惟此福地仙佛奧秘紛產祥兮一人有慶天其申命壽無疆兮明兩作離永固鴻基與天長兮后謂內臣惟彼法身其化彰兮既新其宮宜紀其庸俾無忘兮有石峩峩于山之阿勒銘章兮

[출전 : 『稼亭集』 권6]

# 판독

판독자

정병삼

## 金剛山長安寺重興碑 李穀

聖天子龍飛之七年 皇后奇氏以元妃生皇子 既而備壺儀 居于興聖之宮 顧謂內侍曰 予以宿因 蒙恩至此 今欲爲皇帝太子 祈天永命 非託佛乘 其何以哉 凡其所謂福利者 靡所不舉 及聞金剛山長安寺最爲殊勝 祝釐報上 莫茲地若也 越至正三年 出內帑楮幣一千錠 俾資重興 永爲常住 用明年又如之 又明年又如之 集其徒五百 施衣鉢作法會 以落其成 迺命宮官資政院使臣龍鳳 載本末于石 以詔方來 遂命臣穀爲之文 謹案金剛山在高麗東 距王京五百里 茲山之勝 非獨名天下 實載之佛書 其華嚴所說東北海中有金剛山 曇無竭菩薩與一萬二千菩薩常說般若者是已 昔東方人未之始知 而指爲仙山 爰自新羅增飾塔廟 於是禪龕逼於崖谷 而長安寺居其麓 爲一山之都會也 蓋勗於新羅法興王 而重興於高麗之成王 噫 後法興四百餘年 而成王能新之 自成王至今亦將四百年矣 而未有能興復者 比丘宏辨見其頽廢 與其同志 誓於所謂曇無竭曰 所不新茲寺者 有如此山 卽分幹其事 廣集衆緣 取材於山 鳩食於人 僦面雇夫 礱石陶瓦 先新佛宇 賓館僧房 以次粗完 而費猶不給 則又嘆曰 世尊作祇園 孤獨側金 今<sup>1)</sup>豈無人 顧不遇耳 遂西游京師 事聞中宮 而高資政主之又力 故其成就如是 竊惟乾竺之教 與時興替 昔我世祖皇帝 是崇是信 列聖相承而光大之 今上皇帝繼志述事 尤致意焉 蓋聖人好生之德 佛者不殺之戒 同一仁愛 同一慈悲也 中宮之觀感 有所自矣 且古之施德於天下者 莫如五帝三王 垂教於後世者 莫如孔子 以今觀之 帝王之廟食者幾希 孔子雖有廟 而限於禮制 籩豆薦奠 皆有常數 其徒之食 僅取足焉 惟浮圖氏 其宮在夷夏者 碁布星列 殿陛之嚴 金碧之飾 視王者之居 香火服食之奉 視封邑之入 是其感動于人者實深以廣 茲寺之興宜也 凡爲屋以間計之 一百二十有奇 佛殿經藏鍾樓三門僧寮客位 至於庖湑之微 皆極其輪奐 像設則有毗盧遮那 左右盧舍那釋迦文 巍然當中 萬五千佛五十三佛 周匝圍繞 居正殿焉 觀音大士千手千眼 與文殊普賢彌勒地藏 居禪室焉 阿彌陀五十三佛 法起菩薩 翊盧舍那 居海藏之宮 皆極其莊嚴 藏經凡四部 其一銀書者 卽皇后所賜也 華嚴三本 法華八卷 皆金書 亦極其賁飾 至若舊有之田 依國法以結計之 千有五十 其在成悅仁義縣者各二百 扶寧幸州白州各百五十 平州安山各一百 卽成王所捨也 鹽盆在通州林道縣者一所 京邸在開城府者一區 其在市廛 爲肆僦人者三十間<sup>2)</sup> 凡其錢穀什器之數 有司之者不載 自泰定間 重興檀越 如中政使李忽篤帖木兒諸家 列其名氏于碑陰 銘曰

有山露骨 嶄巖突兀 名金剛兮 貝書所著 菩薩住處 亞清涼兮  
吹噓煙雲 輪囷網緼 發神光兮 鳥獸其馴 蟲蛇其仁 草木香兮  
釋子卓菴 梯空架巖 遙相望兮 長安精舍 居山之下 大道場兮  
肇基羅代 屢其成壞 時不常兮 天啓聖神 世祖之孫 君萬方兮  
德洽好生 煦濡含靈 慕空王兮 於惟睿后 體坤之厚 承乾剛兮  
歸心身毒 取彼妙福 奉我皇兮 惟此福地 仙佛奧祕 紛產祥兮  
一人有慶 天其申命 壽無疆兮 明兩作離 永固鴻基 與天長兮  
后謂內臣 惟彼法身 其化彰兮 既新其宮 宜紀其庸 俾無忘兮

1) 『가정집』에는 ‘念’이나 ‘今’이 맞음

2) 『가정집』에는 ‘門’이나 ‘間’이 맞음

有石峨峨 于山之阿 勒銘章兮



## 해석

해석자

정병삼

금강산(金剛山) 장안사(長安寺) 중흥비(重興碑)

이곡(李穀)<sup>3)</sup> 지음

성스러운 천자께서 즉위하신 지 7년 만<sup>4)</sup>에 황후 기씨(奇氏)<sup>5)</sup>께서 원비(元妃)로서 황자(皇子)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 황후로서의 위의를 갖추어 흥성궁(興聖宮)에 거처하였다. 내시에게 말하기를, “내가 숙인(宿因, 과거세에서 지은 업인(業因))으로 은혜를 입어 이에 이르렀으니, 이제 황제와 태자를 위하여 수명이 영원하기를 하늘에 빌고자 한다. 불법에 의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이른바 복받는다거나 이롭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없더니, 금강산 장안사(長安寺)가 가장 뛰어나게 좋아서, 복을 빌어 위에 보답하려면, 이곳 만한 데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음 해 지정(至正, 원 순제(順帝)의 연호) 3년(충혜왕 복위 4, 1343)에 내탕(內帑, 왕이 사사로이 쓰는 재물)의 저폐(楮幣) 1천 정(錠)을 내어서 중수하는데 보태게 하고, 길이 절의 경상(經常) 재산으로 삼도록 하였다. 다음 해에 또 그렇게 하였고,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였다. 승려 5백 명을 모아서 가사와 발우를 시주하고 법회를 열어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궁관(宮官) 자정원사(資政院使) 신(臣) 용봉(龍鳳)에게 명하여 일신의 자초지종을 들에 기재하라 하고, 조서를 가지고 방금 와서 드디어 신 이곡(李穀)에게 명하여 글을 지으라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니, 금강산은 우리 고려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서울에서 5백 리 떨어져 있는데, 이 산의 명승은 홀로 온 천하에 이름났을 뿐 아니라 실로 불경에 실려 있다. 『화엄경(華嚴經)』<sup>6)</sup>에 이르기를, “동북의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 법기(法起)보살)이 1만 2천의 보살들과 더불어 항상 반야를 강설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알지 못하여 가리켜 신선의 산이라고 하였다. 신라시대부터 탐과 절을 더 세우고 장식하여 이에 선사(禪寺)가 벼랑과 골짜기에 바짝 다가서게 되었다. 장안사는 금강산 기슭에 있으면서 온 산의 도회(都會)가 되었다. 대체로 신라 법흥왕 때에 창건되고 고려 성종(成宗) 때에 중흥되었다. 아, 법흥왕 뒤에 4백여 년 만에 성종이 새롭게 하였는데,

3) 고려 말의 문신.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부친. 1298(충렬왕 24)~1351(충정왕 3). 본관은 한산(韓山). 찬성사 이자성(李自成)의 아들이며, 색(穡)의 아버지. 원나라에 들어가 등의 벼슬을 역임하고 고려에서 밀직부사·지밀직사사를 거쳐 정당문학·도첨의찬성사를 지냈다. 이계현(李齊賢) 등과 함께 민지(閔漬)가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하고 충렬·충선·충숙 3조(三朝)의 실록을 편수하였다. 저서로는 『가정집』 20권이 전한다.

4) 원 순제(順帝)의 지원(至元) 7년으로 1341년. 순제는 즉위하여 처음 원통(元統) 연호를 2년간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은 재위 9년이 된다. 고려 충혜왕 복위 2년.

5)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가 된 기씨.

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 부처가 깨달은 내용을 보현보살 등을 빌어 설한 것으로 보살도(菩薩道) 수행을 십신(十信)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지(十地) 차례로 설명하여 보살도 수행의 근본 경전으로 꼽힌다. 후반부를 이루는 입법계품(入法界品)은 선재동자(善財童子)가 53인의 선지식(善知識)을 찾아다니며 보살도를 묻는 실천적 구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60권본, 80권본의 두 가지 완본이 있고, 입법계품만을 따로 엮은 40권본이 있어 이를 삼본 화엄경이라 한다.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당나라 법장(法藏)이 화엄종(華嚴宗)의 문호를 열어 중국 교학불교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이래 교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와서 계속 간행되어 널리 읽혔다. 내용 중에 지방의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 나오는데, 그중에 법기(法起)보살이 금강산(金剛山)에서 머문다는 구절이 나와 금강산 법기보살 도량의 근거로 얘기된다.

성중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또한 장차 4백 년이 되건만 아직 능히 다시 일으켜 회복하는 자가 없었다.

비구(比丘) 굉변(宏辨)이 그 퇴폐한 것을 보고 그의 동지들과 더불어 담무갈보살에게 맹세하기를, “이 절을 새로 중흥하지 않는다면 이 산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즉시 그 일을 나누어 맡아서 널리 여러 인연을 모으고, 산에서는 재목을 채취하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였다. 마을 사람들을 빌리고 인부를 고용하며, 돌을 갈고 기와를 구워, 먼저 불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빈관(賓館)과 승방(僧房)이 차례로 완성되어 갔으나 비용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또 탄식하여 말하기를, “세존(世尊,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가 기타태자(祇陀太子)의 땅을 빌려 부처를 위해 사위성(舍衛城)에 지은 최초의 절)를 지을 때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좋아하던 부처님 당시의 장자)가 돈을 내었는데, 지금이라고 어찌 그런 사람이 없겠는가. 오직 만나지 못하였을 뿐이다” 하고, 드디어 서쪽으로 원나라 서울로 갔다. 일이 황후에게 알려지고 고자정원사(高資政院使)가 앞장서서 힘썼다. 그런 까닭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부처의 가르침이 때에 따라서 흥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옛날 우리 세조(世祖, 원나라 왕, 1260~1294 재위)황제가 이것을 존중하고 신앙하였으며 역대 왕들이 서로 받들어 빛나게 하고 크게 하였다. 지금의 황제도 선왕의 뜻을 잇고 일을 계승하여 더욱 불교에 뜻을 두었다. 대체로 성인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과 불자(佛者)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은 동일한 인(仁)과 애(愛)이며 동일한 자(慈)와 비(悲)이니, 황후께서 보고 느끼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옛날의 덕을 천하에 베푸는 자는 오제(五帝, 중국의 전설적인 이상적 제왕. 몇 가지 설이 있으나 보통 황제(黃帝) 전옥(顛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을 들)와 삼왕(三王,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세 왕, 하(夏)의 우왕(禹王)과 은(殷)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문왕(文王))만한 이가 없고, 후세에 가르침을 남긴 이는 공자(孔子)만한 이가 없건만, 지금 보면 제왕으로서 사당에서 제사를 받는 자는 거의 드물며, 공자는 비록 문묘(文廟, 공자를 비롯한 역대 대유학자와 선현을 모신 집)가 있기는 하나 예제(禮制)에 국한되어 제수(祭需)와 제사가 모두 일정한 수가 있으며, 그 무리의 먹고 사는 일은 겨우 넉넉함을 취할 뿐이다. 그런데 오직 부처만은 그의 궁전이 중국과 오랑캐의 땅에 있어서 바둑처럼 벌려 있고 별처럼 널리 있으며, 전각의 장엄함과 금벽(金碧)의 장식은 왕자(王者)의 거처에 비길 만하고, 향화(香火)와 복식(服食, 의복과 음식)의 받드는 봉읍(封邑)의 수입에 비길 만하다. 이것은 그 가르침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실로 깊고 넓기 때문인 것이니, 이 절이 중흥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수된 당우를 칸수로 계산하면 1백 20여 칸이 된다. 불전(佛殿)과 경장(經藏, 경전을 보관하는 건물)과 종루(鐘樓)와 삼문(三門)과 승료(僧寮, 승려들이 생활하는 건물)와 객실(客室)에서 부엌과 욕실의 작은 것까지 모두 건물의 아름다움을 극진하게 하였다. 불상은 주불 비로자나(毘盧遮那, 법신불(法身佛))와 좌불 노사나(盧舍那, 보신불(報身佛)) 우불 석가불(釋迦佛, 화신불(化身佛))의 삼존불상이 우뚝하게 가운데 봉안되고, 만 5천 불과 53불(과거의 부처들. 『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이 되는 법장(法藏)비구의 스승인 세자재왕여래(世自在王如來) 이전에 나온 부처들을 말함)이 주위를 둘러 정전(正殿)에 봉안되었다. 관음대사(觀音大士)와 천수천안(千手千眼)관음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과 더불어 선실(禪室)에 봉안되었고, 아미타불과 53불 그리고 법기보살(法起菩薩)은 노사나(盧舍那)를 시립하여 해장궁(海藏宮)에 봉안되었다. 모두 장엄하기가 극치에 이르렀다. 대장경(大藏經)은 모두 4부로서, 그 1부는

은(銀)으로 쓴 것인데, 황후가 하사한 것이다. 『화엄경』 3본(60화엄, 80화엄, 40화엄)과 『법화경』 8권<sup>7)</sup>은 모두 금으로 쓴 것으로서 또한 그 장식을 지극히 아름답게 하였다.

예전부터 있던 전지(田地)에 이르면 국법에 의하여 결(結)의 수로써 계산하면 1천 50결이 된다. 전지로서 성열현(成悅縣)과 인의현(仁義縣)에 있는 것이 각각 200결, 부령(扶寧)과 행주(幸州)와 배주(白州)에 있는 것이 각각 150결, 평주(平州)와 안산(安山)에 있는 것이 각각 100결이니, 바로 성종(成宗)이 희사한 것이다. 염분(鹽盆, 소금 굽는 가마)은 통주(通州)의 임도현(林道縣)에 있는 것이 하나이고, 경저(京邸)는 개성부(開城府)에 있는 것이 1구(區)이며, 시장의 점포로 남에게 세 준 것이 30간(間)이다. 모든 돈과 곡물과 집기의 수는 사무 담당자가 기재하지 않았다. 태정(泰定, 원 진종(晉宗)의 연호) 연간(충숙왕 11~14, 1324~1327)으로부터 중흥 불사의 단월(檀越, 절에 시주하는 사람)들은 중정사(中政使) 이홀독첩목아(李忽篤帖木兒)와 같은 여러 사람들은 그 성명을 비의 뒷면에 열기한다. 명(銘)하기를.

산이 있어 뼈를 드러내니

깎아지른 암벽이 높이 솟아있네

그 이름 금강이라.

불경에 실려 있고

보살의 상주하는 곳

청량산(淸涼山)<sup>8)</sup>의 다음이로다.

구름과 연기를 숨쉬어 내니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서로 합하고

신령스러운 광채를 내뿜네.

새와 짐승은 길들어 있고

벌레와 뱀은 어진데

풀과 나무는 향기가 있네.

승려들의 높은 암자는

공중에 사다리 놓고 바위에 걸쳐 있어

멀리 서로 바라다 보이네.

장안 정사(精舍, 절)는

산 밑에 자리잡은

큰 도량이로다.

일찍이 신라시대에 터를 잡아

세워지고 무너지기 몇 번이던가

세상은 무상하여라.

하늘의 계시가 성스럽고 신령하여

세조의 자손이

만방에 군림하였네.

덕이 흡족하여 살리기를 좋아하고

생령들을 따뜻이 품고 적서 주는

공왕(空王, 부처)을 사모하네.

7) 『법화경』은 본래 7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8권본은 미상.

8) 오대산(五臺山).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동북방에 있는 산으로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실려 있음.

저 슬기로운 황후께서는  
땅의 너그럽고 후함을 본받아  
하늘 같은 굳센 덕을 이어받네.  
마음을 신독(身毒, 인도)에 돌려  
부처의 신묘한 복을 가져다  
우리 황제를 받드네.  
오직 이 복된 땅에서  
신선과 부처의 깊은 비밀이  
많은 상서로움을 낳으리라.  
왕이 경사 있을 때  
하늘이 거듭 명령하여  
수명은 끝이 없어라.  
광명이 들어서(황제와 황후) 이괘(離卦)<sup>9)</sup> 이루니  
길이 나라의 기초를 굳게 하여  
하늘과 더불어 장구하여라.  
황후가 내신에게 이르기를  
저 부처의  
교화를 드러내 밝히라.  
이미 부처의 궁전을 새롭게 하였으니  
마땅히 그 공을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  
높다랗게 선 비석이  
저 산의 언덕 위에 있으니  
명과 글을 새기노라.

9) 밝음을 상징하는 소성괘(小成卦)인 이중허(離中虛) 두 개가 겹쳐서 대성괘(大成卦)인 이괘(離卦)를 이룬다.